

여름철 물놀이용품 안전실태 동향



박정일
제품안전조사팀장
02-509-7250

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자 불만이 많고 위해물질 첨가 가능성이 있는 시중 판매 물놀이기구, 스포츠용 구명복, 선글라스, 썬캡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형할인마트, 전문매장, 재래시장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 7개 품목 13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물놀이 기구는 27개 제품 모두 현재의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등*)는 국산 8개, 수입산 12개 등 총 20개 제품에서 0.2%부터 39.4%까지 광범위하게 검출되었다.

*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디부틸프탈레이트),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
: PVC재질을 유연하게 하기 위한 첨가제로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

스포츠용 구명복은 11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수평강도시험에서 버클 및 지퍼 연결부분이 기준 하중에 미치지 못하고 파손됨으로서 위급시 안전장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글라스는 안전·품질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 80개(성인용 24, 스포츠용 15, 어린이용 41) 제품 중 76개가 자외선 차단 표시 등 안전·품질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자외선차단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투과시 광각 박열, 백내장 등의 치명적인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는 자외선 차단율 등 안전·품질표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썬캡, 자외선차단마스크, 파라솔, 골프웨어 등 4개 품목 16개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다.

물놀이용품은 물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사망 등의 치명적인 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사용자 및 보호자는 미연의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확인'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금년 상반기 현재 여름철 피서용 제품 관련 안전인증(1종) 및 자율안전확인신고(2종) 건수는 575건이며, 이중 수입품이 72%(413건)를 차지한다.

〈 피서용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09.6) 〉

(단위 : 건)

안전인증 물놀이기구	자율안전확인 신고		합계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394	116	65	575

참고로, 지난 3년동안 물놀이 안전사고는 408건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 매뉴얼을 매년 발간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사고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소방방재청) 〉

연도별	건 수	인명 피해	
		사망	실종
계	446 건	413 명	33 명
2006년	148 건	134 명	14 명
2007년	143 건	124 명	19 명
2008년	155 건	155 명	0 명

| 기술표준 2009. 8

